

# NCS개발, 어촌개발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첫걸음

조 주 환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연구소 어촌진흥실 대리

## 1. 들어가며

2013년 5월, 어촌개발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로 표기) 개발이 착수되었다. 2002년 NCS개발이 도입된지 12년만이며, 2007년 농촌개발분야 NCS가 일부 개발된 것에 비해 6년 뒤늦은 시작이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각각 2001년, 2002년에 엇비슷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개발에 비해 어촌개발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사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일-교육·훈련-자격제도를 연계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2014년까지 산업 전 분야의 직무(858종)를 표준화하는 사업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신설 및 재설계 등으로 자격검정이 현장에 맞도록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개인의 평생경력개발경로, 채용·승진·배치 체크리스트, 직무기술서 등 개발·보급으로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및 근로자의 평생경력관리에 활용되는 등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배경에서 어촌개발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갖는 의미와 역할, 개발과정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어촌개발 현황

정부는 시장개방과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등 어촌지역 경제적 여건 악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로부터 어촌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어촌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어촌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이촌방지,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촌개발 잠



재력과 협업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작아 어촌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다가 1995년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됨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의 근거법령이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에서 「어촌어항법」으로 변경되어 어촌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수산업 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돌아가는 소득관련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도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2001년부터는 어촌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어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도입되어 총 사업비 973억원을 들여 134개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상업시설의 조성이나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한 사업과는 달리 어업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어업 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와 도시민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어촌활력 발생,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으로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기준 747억원이 투자되어 115개의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고 그 중 운영이 미흡한 마을 18개소를 지정 해제시켜 현재 97개의 마을이 운영중에 있다.

2012년 전국 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수는 618만명, 체험시설 이용객은 135만명으로 2011년 대비 체험객수는 16.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전국 어촌체험마을의 관광소득 총액은 681억, 체험소득은 317억으로 2011년 대비 체험소득 증가율은 33.8%에 달한다. 마을당 평균 체험소득은 3억 2천만원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어촌지역의 수입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이 우수한 자연자원, 수산물 등 산업자원, 독특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해양여가·레저 공급지로 부상하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서 어촌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인력양성이 매우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 3. 어촌개발 관련 인력양성

어촌지역의 개발은 어촌주민의 생산활동과 관련있는 어장과 어항 및 관계시설 개발과 주거 및 생활과 관련 있는 배후지역의 개발,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동시에 사용하는 관광·체험관련 시설개발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까지의 어촌개발은 주로 엔지니어링, 토목, 건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전문가가 주도하였고 어촌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부재로 개발계획 시 해당지역의 어업방식과 이를 연계한 어업체험, 지역문화, 생산물판매, 관광객 관리운영방법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시설과 공간 위주의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사후 어촌 주민들이 마을운영과 시설의 종합이용에 아쉬움이 컸다.

어촌체험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어촌계장과 사무장 등이 어촌개발의 중심축을 이루고 바다해설사, 어촌관광 컨설턴트와 같은 외부 조직의 협력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촌마을리더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관광지도자 과정’과 현직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및 관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양성과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고 ‘바다해설사 양성교육’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진행하는 등 어촌개발인력의 교육훈련과정이 각 관련기관에서 소구

모 단기,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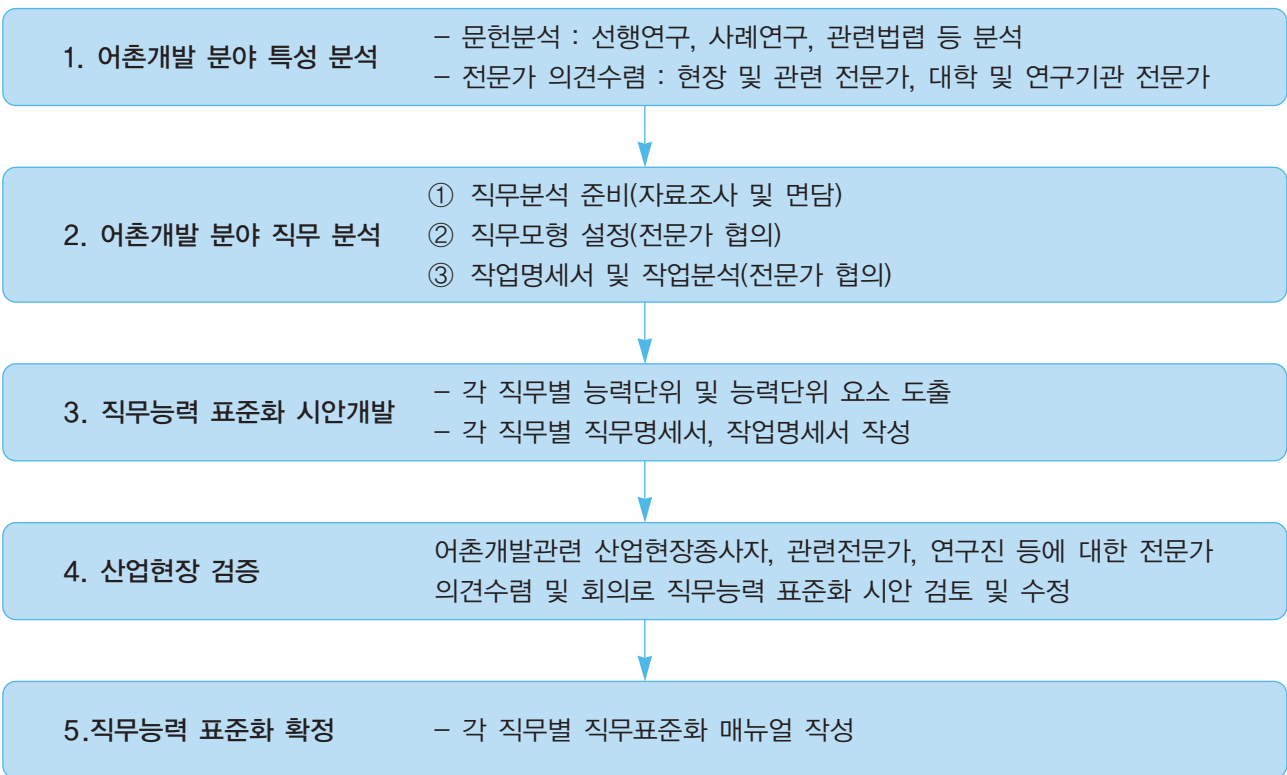
한편, 어업활동의 주무대가 되는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은 현재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직무와 자격기준이 없고, 작업내용을 교육훈련시키는 교육과정, 학과가 없어 어장정화, 해양폐기물 처리 작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관련 산업체가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한 목소리로 토로하고 있다.

현재, 어촌체험·관광 전문인력과 어업환경개선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직무분석과 이에 따른 연계교육훈련과정 개발, 전문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첫걸음인 어촌개발분야 직무능력표준개발 착수는 대단히 고무적이며 의의적이라 할 수 있다.

#### 4. 어촌개발분야 NCS 개발과정

2013년 추진되는 어촌개발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어촌체험상품개발, 어촌체험시설운영, 어업환경개선의 3가지 직무로 확정되었다. 어촌체험상품개발과 어촌체험시설운영 직무는 어촌관광과 관련된 직무로서 어촌체험마을에서 수행되는 많은 부분의 작업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어업환경개선 직무는 주로 어장정화와 해양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의 작업에 초점을 맞춰 직무개발이 진행된다.

각 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정에는 산업현장전문가 7인, 교육훈련전문가 3인, 직무 및 자격분석 전문가 2인과 퍼실리테이터 1~2인 등 직무별로 총 13명 내외가 참여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어촌개발분야 직무능력표준개발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내에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진에 어촌체험마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장과 사무장을 대거 포함시키고 다년간 어촌체험마을 컨설턴트로 활동한 어촌관광 전문 교수 및 연구원, 산업체 대표를 초빙하였다. 또한 개발진에 속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현장견학을 포함한 1박2일 집중 검토회의를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집중 검토회의와 별도로 산업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이중 검토 체계를 구축해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 5. 기대효과

어촌개발분야의 직무능력표준개발은 어촌지역 개발 역사의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과 어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존에 시설과 공간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민 중심의 개발계획 수립과 그 연장선에서 실행되는 관리운영으로 계획과 실행이 일치될 수 있을 것이고 어촌체험마을 종사인력의 전문성과 자격제도의 정비로 체계적인 마을운영 및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개편과 자격제도 신설 등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어촌으로의 젊은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어촌지역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관광이 시작된지 10년 남짓된 지금, 어촌개발분야 직무능력표준개발 사업이 어촌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

